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고 하는데 江山이 세 번이나 바뀌는 30년이 넘는 옛날에 처음으로 女子인 내가 物理學공부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이나 혼났던 것이었다.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느냐면서 말렸다. 마치 내가 보통의 女子가 아닌것 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科學分野는 男子만의 특주분야라고 생각했었고, 女子들은 理科系統의 공부라면 女醫師가 되는 것이 최선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무리가 아니었다.

大學入試때 面接試驗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나의 머리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몹시도 불안하고 긴장되어 삼득 겁을 먹고 면접실에 들어갔다. 지금은 故人이 되신 P교수님은 나를 보시더니 “女學生이 여기는 왜 왔지? 男學生 한 사람을 낙망시키고 女學生이 入學하면 國家的으로 손해야, 四年間 많은 돈을 들여 가르쳐 왔자 졸업하면 시집가서 집안 살림이나 할터인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아무 말썸도 못드리고 절망상태로 떨기만 했었다. 아마 지금도 이와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무사히 그 대학에 입학이 되었고 할은 들었지만 역시 무사히 四年後에는 졸업했고, P교수님의 우려와는 달리 대학원공부도 하고 50고개를 넘은 지금까지 집안 살림만 하는 주부가 아니라 교단에서 후배를 가르치고 있으니 별로 國家的으로 損害를 끼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大學을 卒業하고 처음 약 7년간을 女子高等學校에서 教師生活을 하였었다. 대부분의 女高生들은 理科系統의 學科들을 몹시도 싫어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物理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행방아리 教師인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女性科

自然科學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뿐이었다. 시험으로 평가해 보면 나는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좌절하고 실망했다. 내 자신의 교수방법에 대한 반성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한가지 이유를 알아 냈다. 그것은 實驗美辭을 하지 않고 結論과 백묵만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과학을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女高生들은 大學에 進學하는 과정에서 教師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7년간의 女高教師生活을 하면서 自然科學分野로 進學할 학생이 단 두명뿐이었으니 나의 教師로서의 삶을 실패한 것 같다.

60年代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科學技術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고 정부에서도 이 方面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덕분에 科學技術은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다. 한 나라의 科學技術의 發展이 그 나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으니 이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이었겠으나 女子大學에서는 불모지라고 여겨왔던 自然科學의 學科들



朴 愛 珠
 (淑太物理学科教授)

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단과대학으로 승격되어 있는 大学校도 있다는 것은 女性의 한사람으로 기쁜 일이라 생각된다.

해마다 많은 女學生이 自然科学分野의 공부를 하려고 大学에 진학하고 또 졸업하여 社會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社會에서는 이들 女學士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 간혹 경쟁시험에서 합격이 되었어도 면접이란 최종관문에 가서는 단지 女子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會社의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보면 자격에 “男子”라는 두자를 못박고 있다. 女子는 입사원서조차도 제출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정은 人文社會系 分野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自然系에서는 그 정도가 좀더 심한 것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아무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가정에서 살림이나 사는 평범한 주부로 낙착해 버린다. 마치도 대학의 졸업장이 좋은, 보다 나은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증 같이 느껴져서 서글픔을 금치 못한다. 그 옛날의 P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새삼스레 생각난다. 물론 女子가 가정을

가지고 주부의 위치를 잘 지키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은 없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社會와 國家를 위하여 나아가 일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女子라는 理由 하나 만으로 社會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4년간 大学에서 공부하는 專攻分野를 마치고 나면 性格이나 思考方式이 변하게 되는 것 같다. 자기의 專攻分野에 적용되는 것 같다. 그래서 女性이 自然科学을 공부하면 너무 딱딱해져서 여자다운 맛이 적어진다는 생각 또는 너무 理性的이어서 재미없는 여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부분적으로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면 論理的인 思考力을 기를 수 있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장점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의 科學技術은 섬세하고 정밀을 요구하고 있다. 女性이 지니고 있는 섬세함과 세밀성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바로 이 分野가 女性의 특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女性들의 自然科学分野에의 진출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고 또한 社會에서도 女性을 기피하지 말아 주기바란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을라치면 10명중 6~7명은 과학자 그것도 우주과학자라고 답하는 현실에서도 여자어린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어린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는 아직도 과학자는 남자들만의 특수분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루 바빠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자 어린이도 서슴없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빌고 싶다.